

“이번엔 꼭”...광주FC 전용구장 첫승 해낸다

K리그1 내일 서울과 대결
펠리페·엄원상·윌리안
공격 삼각편대 골사냥 나서
K리그2 전남은 아산 원정경기



광주FC가 22일 FC서울 상대로 광주축구전용구장 첫 승리를 노린다. 펠리페가 지난 16일 강원FC와의 홈경기에서 공을 다루는 모습. <광주FC 제공>

광주FC가 축구전용구장 첫승을 노린다. 광주는 22일 오후 7시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FC서울과 2020 K리그1 17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새 구장에서의 첫 승이 광주의 목표다. 광주는 세 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하고 있지만 앞선 두 경기에서 연달아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무승부에 만족해야 했다. 시즌 홈팬들 앞에서 처음 경기를 치른 지난 강원FC와의 홈경기에서도 경기 종료 10여 분을 남겨놓고 동점골을 허용, 2-2 무승부를 기록했다. 광주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전용구장 첫승에 도전한다. 현재 4승 4무 8패를 기록한 광주는 승점 16점으로 10위에 자리하고 있다. 11위 수원삼성(승점 14)이 2점 차로 뒤에서 추격하고 있지만 앞에는 팀들과의 거리도 멀지 않다. 6위 FC서울이 승점 19점으로 3점 차 거리에 있다. 광주는 펠리페, 엄원상, 윌리안으로 이어지는 공격 삼각편대로 서울 추격에 나선다.

이 공격라인은 지난 강원에서 두 골을 합작하며 위력을 발휘했다. 특히 윌리안은 전·후반 위력적인 움직임으로 두 골에 모두 관여하며 16라운드 주간 베스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펠리페는 광주 K리그1 역사를 목표로 경기에 나서게 된다. 앞서 중앙 파울로(2011-12년), 완델손(2017년)이 8골을 넣으면서 광주 외국인 선수

역사상 최다득점을 기록하고 있다. 펠리페는 지난 15라운드 포항원정에서 시즌 8호골에 성공했다. 이제 한 골만 더 기록하면 광주 외국인 선수 K리그1 최다골 주인공으로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상대 서울의 최근 기세가 만만치 않다. 성적 부진으로 최용수 감독이 지휘봉을 내려놓았지만 김호영 감독대행 체제로 빠르게 팀이 정비

되면서 최근 3연승 중이다. 윤주태와 조영욱이 불오른 득점 감각으로 공격을 이끌고 있고, 베테랑 박주영이 뒤에 버티고 있다. 중원을 지키는 한승규의 발끝도 날카롭다. 광주에는 아쉬운 결장도 있다. ‘캡틴’ 여름이 사후 징계로 서울전을 시작으로 두 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지난 18일 KFA 심판위원회 평가소위원회 결과 “전반 7분 광주 여름이 강원 신세계에게 가한 태클에 대해서 경고 선언했으나 퇴장 조치를 해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결국 여름은 2경기 출장 정지라는 사후 징계를 받았다. 광주가 무더위 속 최근 두 경기에서 막판 동점골을 허용했던 만큼 여름의 공백은 더욱더 아쉽다. 관중석도 다시 비워진다. 코로나19 확산세로 광주도 ‘무관중 경기’로 전환해 서울전을 치르게 된다. 광주가 끈긴한 수비 조직력과 집중력으로 전용구장에서의 첫 승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남드래곤즈도 승리 재개를 위해 나선다. 전남은 22일 오후 7시 충남 아산의 안방으로 가서 K리그2 16라운드 경기를 갖는다. 14라운드 서울이랜드전 0-2패로 5경기 연속 무패행진을 마감했던 전남은 앞선 안산그리너스와 원정경기에서도 0-0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이 경기도 무관중으로 치러진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강원전서 2호골 윌리안 시즌 첫 ‘베스트11’ 선정



광주FC의 윌리안(사진)이 시즌 처음으로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0일 16라운드 베스트 11을 발표했다. 이번라운드 MVP에는 1골 1도움으로 상주전 2-1 역전승을 이끌 FC서울 미드필더 한승규가 선정됐다. 서울은 이 승리로 3연승을 달리며 6위까지 도약했다. 서울과 상주의 경기가 베스트 매치로 선정됐고, 서울은 베스트팀에도 이름을 올렸다. 광주에서는 윌리안이 베스트 11의 영예를 안았다. 윌리안은 강원FC와의 홈경기에서 1-1로 맞선 후반 8분 시즌 2호골에 성공했다. 또 전반 24분에 나온 엄원상의 골 시작점에도 윌리안이 있었다. 윌리안의 강력한 오른발 슈팅이 상대 골키퍼 이범수를 맞고 튀겨 나왔고, 엄원상이 달려들어 제자 슛을 시도하면서 골을 만들었다. 광주는 후반 35분 고무열에게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2-2로 비겼지만 세 경기 연속 무패에 성공했다. 박진섭 감독은 윌리안에 대해 “감독이 요구하는 수비적인 부분에서 100점 가깝게 해주는 선수다. 그동안 골이 터지지 않았지만 자기 몫을 충분히 하고 있어서 기대하고 있다”고 호평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뮌헨, 7년만의 챔스리그 우승 노린다

나브리 멀티골로 리옹 3-0 완파...24일 PSG와 결승 격돌

독일 프로축구의 최강자 바이에른 뮌헨이 리옹(프랑스)을 제압하고 7년 만에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결승에 올랐다. 뮌헨은 20일(한국시간) 포르투갈 리스본의 조제 알발라드에서 열린 리옹과의 2019-2020 UCL 준결승전에서 전반 세르주 나브리의 멀티 골과 후반 로베르토 레반도프스키의 썩기 골에 힘입어 3-0으로 완승했다. 이로써 뮌헨은 우승한 2012-2013시즌 이후 7년 만이자 통산 11번째로 유럽 최상위 클럽대회(유러피언컵 및 UCL) 결승에 진출했다. 유러피언컵과 UCL을 통틀어 5차례(1973-1974, 1974-1975, 1975-1976, 2000-2001, 2012-2013시즌) 우승을 차지했던 뮌헨은 7년 만

의 유럽 정상 탈환을 노린다. 뮌헨은 전날 준결승에서 라이프치히(독일)를 3-0으로 완파한 프랑스의 강호 파리 생제르맹(PSG)과 24일 리스본의 이스타디우 다 루스에서 우승 트로피를 놓고 격돌한다. 앞서 유러피언컵-UCL에서 독일과 프랑스 팀의 결승 맞대결은 1974-1975시즌 바이에른 뮌헨-생테티엔이 유일했다. 당시엔 뮌헨이 1-0으로 승리해 3년 연속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이번 결승에선 뮌헨의 한지 플리크, PSG의 토마스 투렐의 ‘독일 출신 사령관 맞대결’이 성사됐다. 지난 시즌 리버풀(잉글랜드)의 우승을 지휘한 위르겐 클롭 감독에 이어 두 시즌 연속 독일 출신 우승 감독이 나오게 됐다. /연합뉴스

반면 8강전에서 우승 후보로 꼽힌 맨체스터 시티(잉글랜드)를 잡아 이번의 주인공이 된 뮌헨은 뮌헨의 아성을 넘지 못한 채 준결승에서 돌풍을 멈췄다. 세르주 나브리의 멀티 골로 안정적인 리드를 이어가던 뮌헨은 후반 43분 결정타를 날렸다. 레반도프스키는 요주아 키미히가 오른쪽 측면 프리킥을 차올리자 상대 선수 2명 사이에서 뛰어올라 완벽한 헤딩 골을 뽑아내 썩기를 박았다. 자신이 출전하지 않은 토트넘(잉글랜드)과의 조별리그 최종전을 제외하고 이번 시즌 UCL 9경기에서 모두 골 맛을 본 레반도프스키는 총 15골로 득점 선두를 질주하며 이번 시즌 UCL 득점왕을 예약했다. 그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가 보유한 역대 UCL 단일 시즌 최다 골 기록 17골(2013-2014시즌 당시 레알 마드리드)에 2골 차로 다가섰다. /연합뉴스



바이에른 뮌헨의 레반도프스키가 20일 포르투갈 리스본의 조제 알발라드에서 열린 리옹과의 2019-2020 챔피언스리그(UCL) 준결승전에서 팀의 세번째 골을 넣고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목포과학대 배구 bbq배 무안대회 우승

목포과학대 배구팀이 홈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목포과학대는 20일 2020 bbq배 전국대학배구 무안대회에서 3전 전승으로 정상에 올랐다. 대회는 무안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목포과학대는 최종전에서 호남대를 세트스코어 3-1(15-25, 25-20, 25-11, 25-20)로 꺾고 3전 3승으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대회는 목포 과학대에겐 설욕전이 됐다. 지난 7월 고성대회에서 단국대에 패해 2승 1패로 준우승에 그쳤기 때문이다. 목포과학대는 결승전이나 다음없는 단국대전에서 3-1로 승리한 후 우석대도 3-2로 꺾었다. 목포과학대는 우승과 함께 개인상도 휩쓸었다. 정진 감독이 최우수지도자상, 한주은은 최우수 선수상을 받았다. 박미소(세터), 심우경(리베로



목포과학대 배구팀이 20일 2020 bbq배 전국대학배구 무안대회에서 우승한 뒤 자축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상), 김은지(블로킹상), 임예본(신인상)도 개인상을 받았다. 목포과학대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직접 경기를 찾은 김재무 전남도체육회장은 “지난 대회 아쉬운 준우승을 설욕하기 위해 무더위에다 우승이라는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낸다”며 “코로나19의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남은 시즌을 잘 이어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남자B그룹에 속한 목포대학교 배구팀은 21일부터 대회 2연패에 도전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다만 약에서 구하소서
2관	오케이 마담
3관	나의 소녀시대, 강철비2: 정상회담, 69세 박사크3: 엘리먼트스터 대소동
4관	다만 약에서 구하소서
5관	다만 약에서 구하소서
6관	오케이 마담
9관	극장판 핑크는 못말라, 신혼여행 허리케인-사라진 아내 나의 소녀시대, 반교: 디텐션, 반도
7관	씨네캐슬 오케이 마담
8관	씨네캐슬 시크릿 가든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노인과 바다

GAC기획공연 FOCUS 5
이재림 신작: 판소리극 <노인과 바다>
2020.08.21.(금) PM 7:30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No.

광주시립교향악단 제353회 정기연주회
베토벤 250시리즈 - NO.5
2020. 8. 26.(수) PM 7:30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Prayer, 달의 춤

광주시립합창단 제183회 정기연주회
prayer, 달의 춤
2020. 8. 27.(목) PM 7:30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즐거움 문화산책

휴가 끝? 작전 시작!

2020.08.12